

지방 소멸... 이대로는 국가의 미래도 없다



사라지는 지방
막을 수 없다

<1> 프롤로그

경제 대국, 초강대국, 문화 강국 등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미래는 올 수 있을까. 사실 현재까지 여러 지표들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신호를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인구 감소하고 지방이 소멸하고 있다는 점은 이 긍정의 신호를 모두 잠재버릴 만큼 강력하다. 광주일보 2023년 지방의 소멸이 각 분야별로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그 해법을 모색한다.

〈관련기사 3편〉

#목포시의 인구는 2022년 11월 말 현재 21만 7041명이다. 지난 2021년 12월 말 21만8,589명에서 1년도 안 돼 1,548명이 사라졌다. 13년 전인 2009년 10월 말 목포의 인구는 24만4162명이었다. 무려 2만7121명이 감소했다. 인구 감소 추세는 더 가팔라지고 있는 것이다. 같은 기간 노인 인구는 2만3575명에서 4만629명으로 급증했다.

#곡성군의 인구는 2022년 11월 말 현재 2만 7085명이다. 이 가운데 65세 이상 인구는 1만349명으로, 38.2%를 차지한다. 반면 19-49세 인구는 6600명으로 24.4%에 불과하다. 2016년 1월 말 인구는 3만672명으로 3만 명을 유지했으나 6년만에 3587명의 주민이 없어졌다.

지방이 사라지고 있다. 낮은 출산율, 고령 인구 증가 속에 수도권에 지방 인구, 자본 등을 무차별적으로 흡수하면서 나무의 잔뿌리부터 말라죽듯 수도권에서 먼 지방부터 소멸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 그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했는지 땀질식 처방만 반복하고 있다. 지난 2020년 12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일부 개정,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일자리 창출, 청년인구 유입 등에 10년간 1조 원씩 지원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유일한 대책이다.

지방 소멸의 이유는 분명하다. 100년 이상 지속돼 온 국가 재정의 불균형 투입으로 시작해 인구, 자본은 물론 정치·경제·문화·교육 등 모든 것을 수도권에

낮은 출산율·고령 인구 증가 속 수도권, 인구·자본 무차별 흡수 정부는 심각성 모르고 땀질 처방 공공기관 획기적 지방 이전 등 서울에 버금가는 수준의 광주 경기도와 유사한 전남 만들어야

집중시킨 국가 정책의 산물이다. 여기에 오로지 여성 개인의 희생을 전제로 한 아이 낳아 기르기 어려운 여건과 함께 개인 선택의 존중 등 시대적인 조류가 빛어낸 낮은 출산율은 농어촌을 시작으로 지방의 소멸 속도를 더 높이고 있다. 특히 면소재지의 인구 감소는 심각한 수준이다. 곡성군 고달면은 현재 1137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이는 지난 2016년 1월 1337명에서 200명이 줄어든 것이다. 조만간 1000명 선도 무너질 것으로 보이는데, 출생이나 전입은 없고 사망과 전출만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의 정책은 여전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수립·추진되고 있다. 2022년 9월 현재 전체 인구의 50.49%가 서울, 인천,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으며, 지역구 국회의원 253명 가운데 47.8%인 121명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다. 정부부처 장관 및 고위 관료부터 정책에 영향을 주는 전문가 등 주요 핵심 인사 등도 모두 수도권에서 살고 있다. 이들은 모두 이미 기득권자가 돼 수도권으로의 더한 집중을 위해 전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

지역의 미래를 이끌 청년들은 질 높은 대학 교육, 좋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고 있다. 지난 2000년부터 2020년까지 20년간 전남에서만 무려 25만8182명의 청년(20-34세)들이 고향을 떠났다. 청년들은 주로 대학 진학, 취직 등의 과정에서 수도권으로 이주했다. 수도권에 남아 있는 공공기관은 물론 지방에 이전하는 서울 소재 유력 대학, 대기업 등을 대상으로만 국비 지원, 세금 감면, 인센티브 부여 등을 집중하는 등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수도권에 몰려 있는 인구가 지방에 가서 살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방법도 필요하다. 수도권에 아



영리한 토끼처럼 위기를 즐기게

2023년 계묘년(癸卯年), 새 날이 밝은 1일 오전 광주 우치동물원에서 토끼들이 뛰놀고 있다. 옛부터 토끼는 역경을 즐기게 대처하는 동물로 상징되며, 꼬 많은 인간의 모습을 그리는데 자주 차용됐다. 수년째 이어지는 코로나 팬데믹, 지난해부터 몰아친 전 세계적 불황으로 2023년에도 우리의 경제와 시민들의 생활이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토끼의 지혜와 기민함으로 어려운 상황을 즐기게 넘는 한해가 되길 바란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계묘년...전남도, 토끼 관련 지명 38개 전국 최다

신안 토미산·무안 토기동 등

전남도가 2023년 계묘년 검은 토끼띠 해를 맞아 토끼와 관련된 지명에 관심이 쏠림에 따라 전남지역 지명을 분석한 결과 총 38개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토끼 관련 지명은 전국에 158개가 있으며 사·도별로 전남에 이어 경남 28개, 충남 20개, 경북에 17개 순이었다.

전남 시·군별로는 신안군이 '산 모양이 토끼 꼬리처럼 생겼다'는 뜻인 토미산(兔尾山)을 비롯해 4개, 화순군이 '마을 뒷산이 토끼가 달을 물고 있는 형태'라는 뜻의 월곡(月谷)을 비롯해 4개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강진·구례·담양·무안 각 3개 등이다. 종류별로는 마을이 18개(47%)로 가장 많고 계곡 6개(16%), 섬 5개(13%), 고개 3개(8%), 산 3개(8%), 평야 3개(8%) 등의 순이었다.

토끼는 다산의 상징으로 알려져 번창과 풍요를 의미하는 만큼 농경생활을 주업으로 하는 선조들이 풍요로움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토끼와 관련된

지명을 사용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특히 토끼의 형상을 인용한 지명이 많다. 토끼의 꼬리 모양을 닮은 강진 '토미재(兔尾臺)', 마을 모양이 토끼가 일어나는 모습인 무안 '토기동(兔起洞)', 토끼가 막 뛰어가려는 모습인 광양의 '토끼재' 등이다. 또 토끼가 달을 바라보는 모습을 상징한 지명도 많다. 토끼 모양인 뒷산이 남쪽 달을 바라보는 형상인 강진 '월남(月南)', 토끼가 달을 그리워한다는 뜻의 구례 '월암(月岩)' 등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2023 광주일보 신춘문예 당선작

- ▲ 시 - 오후량 '나방의 궁정'
- ▲ 소설 - 백종의 '무지개'
- ▲ 동화 - 한유진 '어린 손님'

광주일보기

광주일보 창간 71주년을 상징하는 '새로운 시작'. 종이신문의 페이지 넘김을 형상화 시킨 디자인으로 새로운 페이지로 넘어가듯이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의미를 담았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2023 새해 특집 32면 발행

독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광주일보 임직원 일동



2023 새해에도

복다복다



癸卯年

모든 게 잘 될 것만 같은 2023년에는 검은 토끼의 지혜로 더 높은 도약을 준비하는 새로운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